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에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의 차이

김성희*, 장윤옥**

경덕여자고등학교*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The differences in adolescents' decision making abilit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in terms of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of Home Economics

Kim, Seong-Hee* · Jang, Yoon-Ok**

*Kyungdug Girl's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in adolescents' decision making abilit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in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of Home Economic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7 students from K girl's high school in Daegu.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ormer was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took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of Home Economics. The latter was the control group, which took the typical lecture-based instruction. Factor analysis, Cronbach α , correlation, and two-way ANCOVA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eps of problem identification and information search of the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teaching methods and the level of the critical thinking ability.

Second, the adolescents who took the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had shown more improvement in the steps of alternatives consideration and value of the decision making ability than those who took the typical instruction.

Third, the adolescents with the high level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have made much more improvement than those with the low. And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adolescents with the low level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those who took the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have made much more improvement than the others who took the typical instru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olescents with the high level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those who took the typical instruction improved much more than the others who took the 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주제어(Key Words) :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practical problem-based instruction),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ability), 의사결정능력(decision making abilitie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정학은 실천과학으로써 학문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가정 생활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추구하며 그러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학에서는 개인이 가정 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적이론적 해결방법 제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 해결방법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유금희, 2004; 유지연, 1997).

가정학이 실천학문으로써의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다(Edersheim, 1988). 오늘날 교육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가정과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상황을 제공하고, 그 문제상황에 대해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천적 해결 방법을 포함하는 잘 고안된 수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문제의 인식과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이다(유정희, 2003). 특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습득한 내재된 특성이기도 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업의 목적이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학습자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Gagne, 1974),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향상이라는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 환경인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이 수준에 맞추어 외적 환경인 적절한 교수학습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화의 발달로 상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구매의 형태와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생활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다양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인해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문경희, 2001; 백승실, 2002). 특히 청소년들은 계획적인 소비 경향이 낮고, 충동소비성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홍은실, 2005) 이것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에서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비자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의 한 방안으로써 학교에서 가정교과의 “소비생활” 단원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 등 소비자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소비성향, 청소년들의 구매의사결정 유형, 그리고 구매의사결정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안을 개발 적용한다면 청소년들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구매의사결정능력 향상 방안이나 어떤 요인에 따라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도난희, 1997; 이현미, 1999; 장혜경, 1996), 의생활(성은주, 2000), 식생활(문성희, 2001; 오희은, 2003; 유지연, 1997), 가족생활과 자원관리(변현진, 1999)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 수업유형이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더욱 강조되는 '소비생활' 단원의 내용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수행하고 이것의 의사결정능력 향상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과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각각의 변인들과 의사결정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보다 이들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이 의사결정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 생활'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과수업 유형(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 의사결정(규명, 정보, 대안, 가치, 평가단계)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1-1.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 1-2.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 1-3.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대

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 1-4.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 1-5.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의사결정능력

의사결정능력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정보를 얻고 해결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평가하고,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하며, 선택된 결정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간을 특징짓는 고등정신능력 중의 하나로서 문제해결능력, 가치판단력, 비판적 사고력, 행동능력,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등이 하위기능으로 작용하는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능력이다(송광휴, 1999). 따라서 의사결정은 단일한 정답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치가 포함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김영채, 1998).

의사결정과정의 단계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김외숙 등(1990)은 문제의 규명, 정보의 획득 및 대안설정, 대안의 평가, 대안의 선택으로, 김성규(2000)는 문제인식, 현상의 탐구와 예측, 가치분석, 대안의 검토결정, 행위의 과정으로, 김현경(2000)은 문제제기, 지식과 가치문제의 확인, 대안탐색, 결과예측, 선택 및 결론, 행동의 과정으로, 그리고 이연숙(1981)은 문제규명, 정보의 획득, 대안수집, 대안평가, 대안선택, 행위의 수행과 수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덧붙여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서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과정을 거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후관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람을 고려하는 가치의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Laster, 198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을 규명단계, 정보단계, 대안단계, 가치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가치단계에서의 청소년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측정하였다.

가정학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족에서의 의사결정 권력에 대한 연구(강기연, 1988; 김규원, 1984; 김옥자, 1986; 김성화문순재, 1989; 유주희, 1993; 윤성숙, 1997; 이정우장병옥, 1987; 임찬경, 1988; 하상희, 1994)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김순영, 1991; 이연숙, 1980; 임정빈문순재, 1988)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 대부분은 합리적인 가족자원의 사용을 통한 가족의 목표달성을 추구하기 위한 가정 관리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소비성향과 소비행동, 구매의사결정유형에 대해 살펴 본 연구들(강은희, 1999; 김정란, 1992; 손상희, 1997; 윤태숙, 1993)이 대부분이며 청소년들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중 한길자(1988)는 청소년들은 의사결정과정 중 문제 인식단계에서는 필요, 구매동기면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디자인, 정보탐색단계에서는 광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박윤복(2001)은 세분화된 의사결정 단계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활동지가 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은 문제인식은 잘 하는 편이나 정보탐색, 대안평가, 결과검토는 수행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결정과정의 단계별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활동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알아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가정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청소년과 소비 생활' 단원에서 '구매의사결정'을 다루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비 생활'에서 '의사결정의 영향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의복구입'이나 '손님초대', '생활용품 만들기' 등의 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기본적인 지식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과 의사결정능력

실천적 문제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매일의 일상적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로, 문제에 관련된 전후 관계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사실적 지식 외에 가치판단을 요하는 행동의 방향성을 포함한 문제를 말하며(이지연, 2001)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실천적 추론을 사용하여 교사가 제시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업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가정학 분야의 연구들은 실천적 비판과학의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연숙(2006)은 학습자들이 생활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변현진(1999)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호의존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현대 사회에서 부딪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실천적 문제를 근거로 한 가정과수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증진시키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문성희, 2001; 성은주, 2000; 유금희, 2004; 윤복순, 1998),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유금희, 2004) 보고되고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이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연구한 윤복순(1998)은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이 의사결정능력, 사고력과 같은 고등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데 필요한 수업이며, 학생들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일상적이고 예기치 않은 가정생활의 복잡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학교 가정교과의 의생활 영역에 실천적 추론 중심 수업을 적용한 성은주(2000)는 의복구매방법을 직접 가르치는 강의식 수업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의복 구매시의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의복 구매 상황을 인식케하며, 올바른 의복구매행동을 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실천적 추론 중심의 수업이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실천적 문제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가치판단이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물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한 후 가치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3.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은 주관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구체적 또는 언어적 자료를 이미 개인에게 갖추어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사물이나 진술을 평가 또는 규정·분류하고 자료를 논리적으로 실험하여 여기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이다.

비판적 사고력, 가치판단력,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결정능력 신장의 구성요소이며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사고의 조작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때 사고의 조작에 비판적 사고력이 중점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김성규, 2000).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영옥(2004)은 쟁점중심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고 하고, 심학경(2000)은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사회과 교재에 비판적 사고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고려한 교사의 질문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희연(2003)은 일화를 활용한 의사결정모형 수업에서 이 모형을 서열화 전략, 강제 선택 전략, 협상 전략, 창안 결정 전략 등을 사용하도록 구조화하고 학습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구성원들과 의견교환으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인지하는 경험을 하게 한 결과 의사결정모형 수업은 전통적인 수업보다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소 중 '사실과 의견구별하기',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주장평가하기', '다양한 정보원의 신뢰성을 비교분석하고 보다 신뢰로운 정보를 선택하기'를 향상시키는 데 효

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또 변현진(1999)은 실천적 추론 수업은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비판적 사고력 하위요소 중 가정의 인지와 판단 영역이 더욱 향상된 것은 실천적 추론 수업과정 중 왜 그럴까 혹은 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가정을 세우며 그 가정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K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이 중 3개 학급의 학생들은 실험집단으로 하여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실시하였고, 2개 학급의 학생들은 통제집단으로 하여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 94명, 강의식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 53명으로 총 147명의 여학생이다¹⁾.

2.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안 개발과정²⁾

1) 실천적 문제문화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과 의사결정능력 평가에 적용할 실천적 문제문화의 개발은 5단계 즉, 실천적 문제문화의 내용영역 선정, 실천적 문제문화의 주제 선정, 실천적 문제문화의 작성, 현장 조사 및 수정,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 단계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실천적 문제문화의 타당도의 알아보기 위해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10일~20일까지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개발된 각 문항을 '실천적 문제의 요소'와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로서의 요소'의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타당도 조사결과 타당도는 5점 만점 중 4.24점으로 실천적 문

1) t-test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M=24.70, SD=3.74)과 통제집단(M=25.59, SD=5.08)의 사전의사결정능력 점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은 서로 동질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안 개발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김성희(2006)의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표 1〉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표에 대한 타당도 조사 결과

(N=10)

평가항목	타당도	M	SD
1. 의사결정능력 평가 목적과의 일치 여부		4.80	.42
2. 의사결정과정의 중요 요소 포함 여부		4.80	.42
3.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용이성		4.30	.48
4. 용어의 이해 용이성		3.60	.51
5. 비슷한 과제나 더 큰 수행영역에서의 일반화 여부		3.70	.48
총 합		4.24	.26

재문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천적 문제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직교사 2명에게 실천적 문제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검사지의 채점을 의뢰하고 이들 채점자 점수간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관관계계수가 .91~.98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거쳐 총 16문항의 실천적 문제문항을 선정하였다.

2)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안

초중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소비자 교육 내용을 망라하여 다루되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년별, 학교 급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였다.

3. 측정도구

1) 비판적 사고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고 기능이나 성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Waston-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 (WGCTA)를 번안한 김성기(1994)의 척도를 수정·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추리, 가정의 인지, 추론, 판단, 논증의 평가라는 5개 하위요인, 총 80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9이다.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채점은 Watson & Glaser의 검사 답안지에 의거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정답인 경우 각 문항당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점수의 평균(M=.55, SD=.07)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청소년을 상집단으로, 낮은 청소년을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의사결정능력 척도

의사결정능력은 실천적 문제문항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응답한 답안지를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결정능력 척도는 이지연(2001)이 사용한 평가기준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의사결정능력 척도는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할 구체적인 요소인 의사결정의 5단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평가요소는 ‘예’, ‘아니오’로만 평가되고, 특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 점수는 부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정된 평가기준표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교육 전문가 2명과 현직 가정과 교사 8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평가기준표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표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실천적 문제문항의 신뢰도 산출에 사용된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표를 이용하여 채점자들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점수간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표에 대한 채점자간 적률상관관계 분석결과

문 항		상관관계계수	문 항		상관관계계수
사전	규명단계	.924***	사후	규명단계	.980***
	정보단계	.792***		정보단계	.988***
	대안단계	.889***		대안단계	.996***
	가치단계	.987***		가치단계	.977***
	평가단계	.939***		평가단계	.884***

4.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으로 선정된 2개 학급 학생들에게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하고,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3개 학급 학생들에게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수업은 동일한 한 교사에 의해 행해졌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5.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수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에게 먼저 의사결정능력 사전검사를 2005년 11월 5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하였고, 비판적 사고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2일 검사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주간에 걸쳐 가정과학 수업시간(1주일에 2시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대한 실험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각 차시의 시간은 50분으로 학급별로 총 8차시의 실험수업이 이루어졌다. 사후검사는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모든 실험수업이 끝난 다음날인 2005년 12월 17일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 이원공변량분석(two-way ANCOVA)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사전 의사결정능력 점수를 공변인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실험수업 후의 의사결정능력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공변량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실천적 문제중심 실험 수업 후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를 공변인인 사전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로 조정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으며,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3〉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G1	O1	X1	O3
G2	O2	X2	O4

G₁ : 통제집단

G₂ : 실험집단

X₁ : 강의식 수업

X₂ :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O₁, O₂ : 사전검사(의사결정능력검사), 비판적 사고력 검사

O₃, O₄ : 사후검사(의사결정능력검사)

〈표 4〉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검사의 조정 평균과 표준편차

수업유형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조정 M(SD)
	비판적 사고력	상 (25) 하 (28)		
강의식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25)		26.13(1.97)
	전 체 (53)	하 (28)		25.53(1.84)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62)		41.99(1.23)
	전 체 (94)	하 (32)		38.58(1.73)
				40.28(1.06)

〈표 5〉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의사 결정 능력	사전의사결정(공변인)	2041.86	1	2041.86	21.50***
	수업유형	6690.71	1	6690.71	70.47***
	비판적사고력	127.64	1	127.64	1.34
	수업유형×비판적사고력	63.91	1	63.91	.67
	잔차	13481.09	142	94.93	
	전체	198860.50	147		

***p<.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의사결정능력 점수는 공변인으로 유의하게(F=21.50, p<.001) 나타났다. 이는 공변량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의 상호 작용 효과와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게(F=70.47, p<.001) 나타났다. 즉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보다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사전 의사결정능력 점수를 공변인으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실험수업 후의 의사결정능력 각 단계(규명단계, 정보단계, 대안단계, 가치단계, 평가단계)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천적 문제중심 실험수업 후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를 공변인인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검사 점수로 조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점수는 공변인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의 주효과와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분화된 의사결정 단계로 이

〈표 6〉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규명단계 의사결정능력 검사의 조정 평균과 표준편차

수업유형	규명단계 의사결정능력		조정된 M(SD)
	비판적 사고력		
강의식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25)		15.67(.14)
	하 (28)		15.87(.14)
	전 체 (53)		15.77(.10)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62)		16.00(.12)
	하 (32)		15.95(.09)
	전 체 (94)		15.98(.07)

〈표 7〉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규명단계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규명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규명단계(공변인)	.06	1	.06	.13
	수업유형	1.18	1	1.18	2.39
	비판적사고력	.18	1	.18	.37
	수업유형×비판적사고력	.49	1	.49	1.00
	잔차	70.59	142	.49	
	전체	37241.75	147		

투어진 의사결정 활동지를 사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결정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 단계별로 보았을 때 문제인식은 잘 하는 편이나 정보탐색, 대안평가, 결과 검토는 수행의 정도가 낮다고 한 박윤복(2001)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표 6>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규명단계 의사결정능력의 총점인 16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제시된 실천적 문제 문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문제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천적 문제중심 실험수업 후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를 공변인인 정보단계 의사결정능력 사전검사 점수로 조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정보단계 의사결정능력 검사의 조정 평균과 표준편차

수업유형	정보단계 의사결정능력		조정된 M(SD)
	비판적 사고력		
강의식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25)		.85(.36)
	하 (28)		.74(.38)
	전 체 (53)		.79(.26)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62)		1.17(.34)
	하 (32)		1.23(.24)
	전 체 (94)		1.20(.21)

<표 9>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정보단계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정보단계(공변인)	.14	1	.14	.03
	수업유형	5.40	1	5.40	1.45
	비판적사고력	.02	1	.02	.00
	수업유형×비판적사고력	.21	1	.21	.05
	잔차	526.51	142	3.70	
	전체	699.25	147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점수는 공변인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의 주효과와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결정모형 수업의 결과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소 중 '다양한 정보원의 신뢰성을 비교분석하고 보다 신뢰로운 정보를 선택하기'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고희연, 2003)나 논쟁수업으로 비판적 사고력 중 초등학생의 정보 분석 능력과 정보 평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유정희, 2003)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이 실험수업 전후 동일하게 실제 생활 속이 아닌 교실과 수업시간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보 탐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했다하더라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기존에 형성되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만으로 응답할 수 밖에 없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천적 문제중심 실험수업 후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를 공변인인 대안단계 의사결정능력 사전점수 점수로 조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0>,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점수는 공변인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수업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게($F=41.36, p<.001$) 나타났다. 즉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보다 대안단계에서의

<표 10>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대안단계 의사결정능력 검사의 조정 평균과 표준편차

수업유형	대안단계 의사결정능력		조정된 M(SD)
	비판적 사고력		
강의식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25)	.94(1.38)
		하 (28)	.42(1.47)
	전 체 (53)		.68(1.01)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62)	10.04(1.30)
		하 (32)	8.17(.93)
	전 체 (94)		9.11(.80)

<표 11>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대안단계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대안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대안단계(공변인)	76.39	1	76.39	1.42
	수업유형	2213.96	1	2213.96	41.36***
	비판적사고력	46.22	1	46.22	.86
	수업유형×비판적사고력	14.89	1	14.89	.27
	잔차	7600.82	142	53.52	
	전체	14912.75	147		

***p<.001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의사결정 대안단계를 이론적으로 학습하지만 실천적 문제중심의 수업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4.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천적 문제중심 실험수업 후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를 공변인인 가치단계 의사결정능력 사전검사 점수로 조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2>,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2>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가치단계 의사결정능력 검사의 조정 평균과 표준편차

수업유형	가치단계 의사결정능력		조정된 M(SD)
	비판적 사고력		
강의식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25)		7.90(.80)
	하 (28)		8.95(.86)
	전 체 (53)		8.42(.59)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62)		14.49(.75)
	하 (32)		13.32(.54)
	전 체 (94)		13.90(.46)

<표 13>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가치단계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가치단계(공변인)	393.99	1	393.99	21.73***
	수업유형	949.45	1	949.45	52.36***
	비판적사고력	.11	1	.11	.00
	수업유형×비판적사고력	40.00	1	40.00	2.20
	잔차	2574.51	142	18.13	
	전체	24277.50	147		

***p<.001

〈표 14〉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평가단계 의사결정능력 검사의 조정 평균과 표준편차

수업유형	평가단계 의사결정능력		조정된 M(SD)
	비판적 사고력		
강의식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25)	.25(.05)
		하 (28)	.02(.05)
	전 체 (53)		.13(.03)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	상 (62)	.09(.04)
		하 (32)	.04(.03)
	전 체 (94)		.07(.03)

〈표 15〉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평가단계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평가단계(공변인)	.00	1	.00	.06
	수업유형	.13	1	.13	1.84
	비판적사고력	.62	1	.62	8.35**
	수업유형×비판적사고력	.28	1	.28	3.78*
	잔차	10.55	142	.07	
	전체	12.75	147		

*p<.05 **p<.01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점수는 공변인으로 유의하게(F=21.73, p<.001) 나타났으며,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와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치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게(F=52.36, p<.001) 나타났다. 즉,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보다 가치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의사결정에 있어 가치단계는 선택된 대안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행동 결과를 고려하는 단계로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서는 학습과정 중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장혜경, 1994; 도난희, 1997; 성은주, 2000; 최영미, 2002) 자신이 할 결정의 합당한 이유와 결과를 스스로 탐색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치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5.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천적 문제중심 실험수업 후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검사 점수를 공변인인 평가단계 의사결정능력 사전검사 점수로 조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4〉, 이원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사전점수는 공변인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주효과(F=8.351,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평가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단계가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여 그 결과가 다음의 의사결정에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이 되는 단계이므로 자료 수집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판단하며 정보나 주장, 출처를 의심해보며 평가하고 의견을 검증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용하는 정신적인 과정인 비판적 사고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청소년들의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F=3.786, p<.05$)으로 나타났다. 즉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 유형이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의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강의식 수업 유형이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나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유형이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해결력, 도덕성, 창의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 유형과 같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이나 해결 훈련을 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찾거나 해결을 잘 할 수 있으며, 반면 비판적 사고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이나 해결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실천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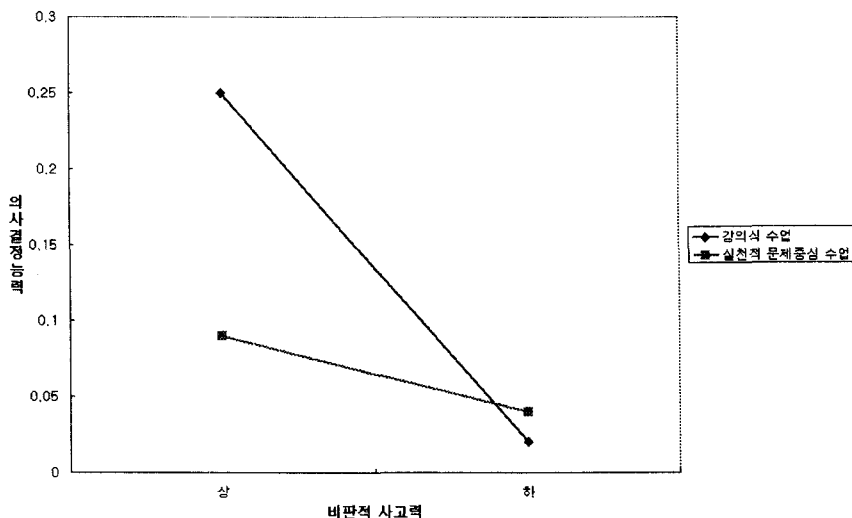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 생활'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 있어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보다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 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규명단계와 정보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둘째,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보다 대안단계와 가치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유형과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라 평가 단계의 의사결정능력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강의식 수업이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나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평가 단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정과 수업이 현재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론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으로 나아감으로써 실천교과로서의 그 특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이미 갖추어진 자신의 학습자의 특징으로 인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도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비판적 사고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과 같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학습안내를 받아 문제해결의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특성인 비판적 사고력 수준을 고려한 수업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의 의사결정능력의 효과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비판적 사고력을 학습자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논리적 사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논문형 사고력 검사는 국내에는 다양하지 않아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로 번역된 외국의 검사지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의 비판

적 사고력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비판적 사고력 측정지가 우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능력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논문형 문항을 사용하고 이를 평가기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응답이 수업시간과 교실이라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보 인식과 정보 탐색에 관한 측정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의 개발과 보완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희(1999). 청소년소비자의 수입상품 선호도와 구매의사결정.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연(2003). 일화를 활용한 의사결정수업이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2000).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기(1994). 구성중심 수업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학습. 교육과학사.
- 김정란(2000). 초중사회과에서 쟁점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육성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 진주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0). 의사결정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난희(1997). 실천 문제 해결 수업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가정과 인간발달과 가족관계영역의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문경희(2001). 기존시장과 가상시장에서의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유형 비교-국내 가상시장 구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문성희(2001). 식생활 단원에 적용한 실천적 추론 수업이 여고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박윤복(2001). 생물 윤리 의사결정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합리적 의사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백승실(2002). 텔레마케팅에 나타나는 소비자문제와 개선방향에 관

- 한 연구-한국, 미국, 일본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현진(1999). 실천적 추론 가정과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가족관계와 자원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성은주(2001). 중학교 가정교과 의복구대단원의 실천적 문제해결 모형을 적용한 수업개발 및 효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손상희(1997).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41-354.
- 송광휴(1999). 사회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연구- 교수학습방법의 구안과 적용을 중심으로. 인천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심학경(2000). 사회과에서 내용 및 질문 제시 양식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오희은(2003). 가정과 실천적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ICT활용 교수학습 환경의 설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금희(2004). 실천적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한 수업연구-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2003). 논쟁수업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1997). 실천적 문제중심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식생활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윤복순(1998). 남녀 고등학생이 인식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의 효과-인간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숙(1993). 청소년의 학용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1980). 가상된 경제문제에 관련된 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시험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_____(200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가정교과의 대안적 모형. 2005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영옥(2004).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1). 가정과 수업에서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능력 평가 도구 개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1999).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여고생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인간발달과 가족관계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문숙재)(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49-166.
- 장혜경(1996). Marjorie M. Brown의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현(1999). 실천적 추론 가정과수업과 다른 요인이 한국 여고생들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3), 43-61.
- 한길자(1988). 고등학생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운동화 구매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실(2005). 중, 고,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청소년 단계와 성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Edersheim, M. A.(1988). The contribution of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 and other factors to the decision making level of tenth grade Home Economics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Gagne, R. M.(1974). *Essentials of learning for instruction*. Hillsdal: Dryden Press.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 생활'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 있어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K여고 147명의 학생들로 2개 학급 학생들에게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하고, 3개 학급 학생들에게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을 4주간에 걸쳐 학급별로 총 8차시의 실험수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전통적 강의식 가정과수업을 받은 청소년보다 대안단계와 가치단계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강의식 수업이 평가단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거나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실천적 문제중심 수업이 평가 단계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9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24일